



## 물처럼 산다는 것 - 상선약수(上善若水) -



**박재희**  
인문경영원 대표

- 성균관대 철학박사
- (전)포스코 석좌교수
- (전)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
- 인문경영원 대표
- 흥천 Salon In Moon 대표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최고의 선(善)은 물과 같은 것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나 공을 과시하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래서 도(道)와 가깝다. <도덕경 8장>

노자 <도덕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상선약수(上善若水)'입니다. 물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의 바람이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물처럼 살고 싶어 할까요? 그저 물 흐르는 대로 순리대로 살고 싶은 바람을 물이 잘 어울려서일까요? 아니면 물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그런 것일까요? 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충분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규정하지 않고 다가오는 지형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유연성, 세상을 이롭게 길러주는 유익성,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함, 흐르다 웅덩이 갠히면 잠시 쉬었다가 물이 채워지

면 다시 흐르는 시의(時宜)성, 늘 수평을 잡아주는 공정성, 잔잔하고 고요하게 자신의 몸을 다룰 줄 아는 정숙성, 물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줍니다.

노자는 무슨 의미로 가장(上) 훌륭한(善) 것이 물(水)과 같다(若)고 했을까요? 노자는 일단 물이 가지고 있는 도(道)의 속성을 말하고 그 뒤에 7가지 물의 특성을 덧붙입니다. 도의 위대한 속성은 베풀어도 베풀었다고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물을 만들어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살게 해주어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길러주어도 주재하려 하지 않고, 베풀어도 과시하지 않는 도의 속성과 가장 닮아 있는 것

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만물(萬物)을 길러 주는 이(利)로운 행동을 했음에도 자신 한 공덕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경쟁(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衆人)이 싫어(惡)하는 곳(所)으로 머뭍니다(處). 그래서(故) 자신의 공덕을 과시하지 않는 도(道)와 가장 가깝다(幾)고 할 수 있습니다. 노자의 도에 관한 생각은 일관적입니다. 자신의 공을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도의 속성과 가장 가까운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지구가 이토록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체는 물을 통해 성장하고 유지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도 없습니다. 화성에 물이 있다면 생명체도 있을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물은 자신을 경배하거나 추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행할 뿐입니다. 너무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물에 대한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물이 없을 때 비로소 물의 존재감과 고마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도 이런 물의 정신을 닮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나아가 자신의 공을 자랑하거나 과시해서는 안됩니다. 겸손함과 정중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며, 욕망, 꿈수,功名심, 의도, 이기심으로 세상을 이끌어서도 안됩니다. 자신의 공을 드러내는 순간 결국 물거품처럼 힘은 빠지게 될 것입니다.

居善地	거함에 낮은곳에
心善淵	마음은 연못처럼
與善仁	배플때 아낌없이
言善信	언행은 신뢰있게
正善治	정치는 질서있게
事善能	일할때 능력있게
動善時	거동은 때를아니
夫唯不爭 故無尤	아! 공을 다투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 부쟁무우(不爭無尤)**

물의 7가지 정신, 노자는 물처럼 산다는 것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합니다. 세글자인 글자 수에 맞춰 번역도 글자 수를 맞춰 그 맛을 살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 낮은(地) 곳에 거(居)한다. 거선지(居善地)**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론 지구의 중력 때문입니다. 낮은 곳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니 겸손합니다. 세상의 만물을 길러주고도 오히려 낮은 곳에 처하며 겸손하니 참으로 멋진 모습입니다. 선(善)은 잘한다는 뜻입니다. 땅(地)은 산(山)에 비교되는 대상으로 낮은 곳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인간은 늘 높은 곳에 있기를 욕망합니다. 저 높은 권좌에 앉아 세상을 굽어보며 군림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상석에 앉으려 하고, 모임에서도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만나면 누가 더 높은지 늘 따지고 경쟁합니다. 나이, 지위, 학벌의 높낮이를 따지고, 나아가 아파트 평수, 차량의 크기를 따져 누가 더 높고 있는지를 결정해야 비로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낮은 데로 거하는 사람은 성인입니다. 예수와 부처와 공자는 모두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에 거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낮은 곳으로 거할 때 비로소 성인의 반열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 2. 연못처럼 깊은 마음. 심선연(心善淵)

물이 고여 연못이 되면 깊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이 깊은 연못은 가뭄에 마르지 않습니다. 모든 이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어머니 품 같습니다. 연못(淵)은 깊다고 번역했습니다. 깊은 연못처럼 세상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지도자의 품성이 느껴집니다.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속 깊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지도자의 품성을 깊은 연못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 3. 아낌없는 베푸는 인정. 여선인(與善仁)

물은 선택하여 베풀지 않습니다. 모든 이에게 골고루 혜택을 줍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물을 주고,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십니다. 물은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목마름의 공감, 메마름의 공감, 이 공감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나누는 실천을 합니다. 인(仁)은 측은지심(惻隱之心)입니다. 남의 불행을 공감하고 측은하게 여

기는 것입니다. 그런 인자함으로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與) 물의 모습에서 노자가 바라보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 4. 믿음이 가는 언행. 언선신(言善信)

물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잔뜩 끼고 주춧돌에는 습기가 젖습니다. 인간들이 해석을 못 할 뿐 물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에게 말합니다. 물은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신뢰(信)가 가고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믿음직한 물의 모습을 지도자는 닮아야 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부정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도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됩니다.

### 5. 바르게 하는 정치. 정선치(正善治)

정치는 바르게(正)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바로잡고, 거꾸로 된 것을 바로 일으키는 것이 정치입니다. 강자가 힘으로 약자를 누르는 것을 바로잡고, 억울한 사람의 심정을 풀어주어 옳고 그름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정치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자신의 색깔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른 정치입니다. 물은 이런 바른 정치와 닮았습니다. 불균형을 잡아 수평을 잡아주는 모습은 물의 바른 철학입니다.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고, 높고 낮은 것에 균형을 잡아주는 물의

능력은 바른 정치의 지도자와 닮았습니다.

### 6. 능숙한 일 처리. 사선능(事善能)

물은 강한 쇠를 자르기도 하고 집채만 한 바위를 띄우기도 합니다. 제철소에서 뜨겁게 흐르는 쇠물을 식혀주는 것도 물입니다. 물을 이용해 큰 바위를 깨기도 하고, 전기를 생산해 내기도 합니다. 더러운 옷을 세탁하여 깨끗하게 만들기도 하고, 길가의 오물을 깨끗이 치우기도 합니다. 물의 능력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대단합니다. 일(事)하는 데 있어 놀라운 능력(能)을 발휘하는 물을 닮아야 합니다.

### 7. 때를 알고 움직인다. 동선시(動善時)

겨울이 되면 물은 고체로 변하여 단단한 얼음이 됩니다. 봄이 오면 단단했던 얼음이 녹아 다시 액체 상태의 물이 됩니다. 참으로 때를 아는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일어날 때인지, 아니면 녹아야 할 때인지를 정확히 알고 처신하는 물의 모습을 지도자는 닮아야 합니다.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때와 장소를 알아 처신해야 합니다. 나아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 머물며 잠시 때를 기다려야 할 때인지를 아는 물이야말로 지혜로운 처신을 하는 존재입니다. 진퇴(進退)와 거취(去就)의 판단을 잘못하면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나서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아야 몸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물의 위대한 정신은 부쟁(不爭)의 정신입니다. ‘부쟁(不爭)’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는 자신의 공을 드러내서 남과 얼마나 자신이 훌륭한지 경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과시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였다고 자신의 공을 알아달라고 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물이야말로 지도자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내 공을 알아달라고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기에 누구도 허물(尤)이 없습니다. 우(尤)는 허물이나 결점이라는 뜻입니다. 남과 경쟁하여 자신의 공을 자랑하려 하지 않기에 결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공명심입니다. 공명심(功名心)은 자신의 이름과 성공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공명심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비석에 이름을 새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여기저기 남기려고 합니다.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이 얼마나 소박하고 아름다운 삶인지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세상을 위해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을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KMF**